

한전사업 호남지사 소외된 이웃에 연탄 배달



한전사업 호남지사의 빛고을·해오름 봉사단원들이 지난 20일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광주시 동구 용산동 전모씨 집을 방문해 연탄을 배달해주고 노후 배선을 정비해 주는 등 봉사활동을 했다. 한전사업 호남지사는 지난 2007년부터 봉사동아리를 구성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다. (한전사업 호남지사 제공)

윤림중, 광주지검 방문 감사와의 대화



광주 윤림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최근 청소년진로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광주지방법검찰청을 방문해 감사와의 대화 및 여성이동실, 모의법정 등을 둘러본 뒤 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윤림중학교 제공)

전국치의학전문대학원 학술경연대회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2년 연속 대상

예비 치과의사들의 논문연구 성과를 겨루는 학술경연대회에서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수관)이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



정학현 김형문 김세희

지난 10월 16일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제11회 전국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에서 'Growth Inhibition of Oral Cancer Cells By Imiquimod (Imiquimod에 의한 구강암 세포의 증식 억제효과)' 논문을 발표한 정학현·김형문·김세희 학생팀(이상 치의학과 2년, 지도교수 윤정훈·안상진)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조선대는 지난해 원광대에서 열린 제10회 대회에서 최환석·이주형 학생팀이 대상을 차지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한국 치과대학장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9개 대학 15개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전국 치과대학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모여 학술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이 대회는 한국 치의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1999년 시작됐으며 특히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발표에서 질문까지 모두 영어로 진행되는 등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순천에 공공자전거 사업 펼쳐는 '위트콤' 신용진 사장

“초경량 마그네슘 자전거로 순천만 달리세요”

“마그네슘 자전거를 타고 세계 랍사르 습지로 채택된 순천만을 달리세요.”

세계 5대 연안 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 생태 관광을 위해 순천이 자전거 천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마그네슘 재질로 된 초경량 자전거를 요소에 배치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만의 일부 자전거에만 사용되고 있는 마그네슘 자전거를 만든 업체는 다름아닌 공공자전거시스템과 모바일 솔루션 전문 기업인 '위트콤'(WITCOM).

신용진 위트콤 대표이사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마그네슘 자전거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다 무게도 일반 자전거에 비해 1/4가량 가볍고 내구성은 더 높다”며 “여기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첨단 IT 기술까지 적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트콤은 이미 지난 2년간 서울시 송파구와 창원시에 공공자전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지원을 하고 있어 경험이 풍부하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디자인된 공공자전거가 여성, 노약자에게 다소 무거워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파악하게 됐다.

신 대표이사는 “공공자전거의 무게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신소재인 마그네슘에 대해 알게 됐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순천시 소재 기업과 협력해 마그네슘 프레임에 사용한 자전거를 제작한 것”이라며 마그네슘 자전거의 탄생 배경을 밝혔다.

이 자전거는 고가의 카본, 티타늄 등의 소재보다 매우 저렴해 가격대비 내구성이 좋다. 초경량에다 고강도 성질의 마그네슘 소재 공공자전거가 순천시에 최초로 공급하게 된 것이다.

마그네슘 자전거 100대는 지난 15일부터 '자전거 터미널'에 배치돼 순천시 매곡동 동천수변공원에서 순천만까지 10km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전거를 빌려주고 반납 받는 자전거 터미널은 동천수변공원, 풍덕고, 이마트 앞,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생태공원 등 5곳. 관광객은 자전거 터미널 단말기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누르고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전화기에 입력하면 잠금장치가 풀린다. 이 같은 방식의 자전거 사용인증은 교통카드도 가능하다.

자전거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부착돼 분실을 막고 이용도도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제품을 충전하는 신기술 전력선 통신(PLC) 시스템도 도입됐다.

신 대표이사는 “마그네슘 자전거와 함께 실시되는 이 시스템이 순천만 생태 관광과 자전거 활성화에 위한 새 모델이 될 것”이라며 “더욱 안정적이고 좋은 자전거는 물론 향상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한국 곡예단 1호’ 동춘서커스 84년 풍상 끝에 역사속으로

관객 감소 경영난 시달려

한국 서커스단 1호이자 국내 곡예단의 마지막 명맥을 이어온 동춘서커스단이 84년 동안 술한 곡예를 켜다 역사속으로 사라질 운명을 맞았다.

허장강과 이주일 등 당대 최고의 영화배우와 희극인을 낳은 대중문화의 중심지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1970년대 TV 문화에 관객을 빼앗기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전종익의 천막 공연 방식을 벗어나 백화점과 축제 현장으로 나서 젊은 취향을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작년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자금난을 이겨내지 못했다.

서커스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춘은 1925년 일본 서커스단을 탈퇴한 박동수 선생(호 동춘)이 조선인 출신 연예인들 30여명을 모아 결성했다. 정통적인 곡예 외에 국악과 풍물놀이,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1960년대가 최전성기였다. 연예인 양성 기관이 제대로 없던 때 당대 최고의 희극인, 가수, 배우들이 모이는 연예계 1번지로 이름을 날렸다. 동춘의 마지막 단장인 박세환(65) 씨가 노래와 연기, 무대 진행 등을 아우르는 ‘만능 엔터테이너’의 꿈을 안고 입단한 것도 이 시기다.

하지만, 1970년대 TV 브라운관의 득세는 일취월장하던 서커스단의 운명을



바꿔냈다. 최근 주 저너 드라마를 보는 것이 유행되면서 공연장을 찾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당시 18개나 됐던 국내 서커스단이 5개로 줄어드는 등 TV의 위협 앞에 맥없이 주저앉았고, 동춘은 이후 다시는 예전의 인기를 되찾지 못했다.

동춘이 전통적인 천막 공연에서 벗어나 백화점과 기업 행사, 지방 축제 현장을 돌아다니며 관객 다변화에 나서는 등 재기의 몸부림을 치기도 했으나 매년 허사였다. 젊은 층을 노려 비보이(B-Boy) 공연을 선보이고 뮤지컬과의 혼합 장르

를 추진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

박 단장이 정부에 “서커스 예술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금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몇 번의 논의 끝에 결국 무산됐다.

실상가상으로 악재가 겹쳤다. 2003년 대동 ‘매미’로 천막과 공연장비가 모두 부서졌고 작년 금융위기로 급격히 이어지던 관객이 톱 끊겨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실상 휴업했다.

작년 말 포털 다음(Daum)에서 딱한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이 “동춘을 한국판 ‘태양의 서커스(캐나다의 예술 서커스)’로 키우자”며 온라인 모금 운동을 벌였지만, 대세를 되돌리기에 역부족이었다.

빛이 3~4억원 대로 불어났고 올해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그나마 수익이 되던 지방 축제 및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다. 금융기관들은 모두 추가 대출을 거부했다. 동춘은 국내의 마지막 서커스단이다. 2003년 이후 박 단장 이외에 서커스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의 고집으로 살려오던 서울아트 서커스 등 다른 곡예단 2곳은 작년에 모두 문을 닫았다.

박 단장은 “1978년 인수해 30년 넘게 자력으로 운영했지만 이제 더 버틸 수가 없다. 한때 한국 대중문화의 중추 역할을 했던 서커스 예술이 맥이 끊기게 될 만큼 정부나 민간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연희뉴스

“농업박람회 2012년 국제행사 승격 전남 농업, 2·3차 융복합산업 발전”

박민수 전남도 농기원장



차장을 추가 확보해 주차장 부족분제를 해결했다”며 “아울러 전서관을 대형화·규모화해서 동선을 단순화, 관람객이 편안하게

“올해 농업박람회는 전남 친환경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단순 1차 산업에서 2·3차 융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대안창출과 발전방향 제시에 중점을 뒀습니다.”

‘제8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최를 하루 앞둔 박민수(55) 전남도 농업기술원장은 “2002년 남도농업박람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출액이 473억원, 국내 바이어 구매액 905억원, 현장판매 53억원 등 부가가치 창출을 비롯해 매년 관람객 60만명이 찾는 한국농업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농업기술원 부지를 이용해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어렵지만 인근 대체 주

전시물을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행사 승격돼 여는 2012년 농업박람회를 통해 한국농업의 발전성과 미래상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여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8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그린 농식품, 행복찬 소비자’를 주제로 개최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시집·수필집 동시 출간

김양기 전 함평 부군수가 시집 ‘아내를 울린 시’와 해의 기행수필집 ‘이역에 뿌린 여정’을 동시에 출간했다.



함평출신의 김 전 부군수는 전남대 상대를 나와 총무처, 산림청 사무관, 전남도 공보관실, 함평 부군수 등을 역임했으며 ‘문학에

술’ 신인상을 수상, 문단에 데뷔했다. 현재 초당대학교 초빙교수로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다.

인사

◆영산강유역환경청 △5급 승진 ▲정계수 상수원관리과장

내방

▲정운태(조선대 미술대학장)씨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 ▲김명순씨 장남 양재영군 신홍수(평동주유소·백암주유소 대표)·서덕씨 장녀 신희양=24일(토) 낮 12시30분 웨딩의전당 풀림버스 2층(노블레스홀)
▲정근채·임화주씨 차남 형준(인천세무서)군 김동현(전 전남일보 사 진부국장)씨 장녀 도희(신창초 교사)양=24일(토) 오후 1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김승환·임종심(동천어집)씨 장남 동희군 민경남씨 장녀 수정양=24일(토) 오후 1시 웨딩의전당 금호30층(아시아나홀)
▲유병호(남순천의원 원장)·이순복씨 아들 재철(전공수련의)군 김용하(광주고 교장)·노명란씨 딸 미나(약사)양=24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 ▲양태승·박판임씨 장남 정일(전 광주일보 업무국 사원)군 심종순·이미례씨 오후 2시 회양=25일(일) 오후 1시30분 상무지구 예술의전당 2층(로즈마리홀)
▲박현희·김진숙씨 장남 주영군 이팔용·조부덕씨 차녀 선희양=25일(일) 오후 1시30분 웨딩의 전당 금호30층(아시아나홀)
▲이상순씨 장남 지훈군 오태홍씨 장녀 미희양=25일(일) 오후 1시 50분 갤러리아웨딩컨벤션 2층(크리스탈홀)
▲최영옥·선후자씨 막내 상주(광주롯데백화점 홍보팀장)군 박래선·김안숙씨 장녀 진영양=25일(일) 오전 11시20분 조선컨벤션 1층(춘추관)
▲곽용연·박순철씨 장남 상호군 최현주(광주시 환경녹지국장)·김숙희씨 장녀 해미양=11월1일(일) 오후 3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서식

- 장, 피로연 23일(금) 오후 6시 예벌 무선웨딩컨벤션 2층(아일랜드홀)
동창·동문회
▲북성중 22회 동창회(회장 김경범) 월례회=22일(목) 오후 7시 방림동 동해 횡간. 062-676-9898.
▲북성중 5회 동창회(회장 이승우) 야유회=24일(토) 영광 백수해안도로(광주역에서 9시10분 출발) 011-643-5301.
▲광주보건대학사회복지과 동문회(회장 김운기) 정기총회=24일(토) 오후 6시 한국토지공사빌딩 11층(삼성생명) 016-611-2858.
▲학다리중·고 총동문회(회장 양한모) 체육대회=25일(일) 오전 9시 모교 운동장(우천시 체육관)
▲재광의신중학교 총동문 가족체육대회=25일(일) 오전 10시 OB백주 광주공작 운동장. 017-511-4040.

- ▲광주 남초등학교 동문회(회장 허선호) 및 체육대회=25일(일) 오전 10시 모교운동장. 011-602-9019.
향우회
▲재광인신비교 향우회(회장 박은산) 체육행사=24일(토) 오전 10시 서구국민체육센터체육관(풍광생활체육공원 내) 017-627-2602.
▲재광보성을 향우회(회장 김선주)=27일(화) 오후 6시30분 북구 일동 페르마. 062-525-5566.
▲재광곡성군 향우회 월례회=28일(수) 오후 7시 무등파크호텔 가는 길 시내내. 018-620-0900.
중친회
▲창원향씨 광주·전남중친회(회장 황양선) 강원도 철원 세정원 세향참례=24일(토) 오전 8시 광천동 터

- 미널 건너편 출발.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발라드 전문 상담=무겁고 피곤한 발, 각질, 무좀, 갈라진 발, 붓는 발 등. 광주시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탐정청외과 옆 베네슈. 062-266-665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지킴이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희망상담=가족 갈등,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상담 및 개입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진행. 062-234-579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로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열 우산

- 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부음
▲정장례씨 별세 김대중·광중·옥림·옥례·철선·영례씨 모친상=발인 23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재진씨 별세 철주·철우(인천경찰청 경정)·명숙·은영씨 부친상=발인 23일(금)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나송남씨 별세 승기·승술·승대씨 부친상=발인 22일(목)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박정권씨 별세 효주·효일·승희씨 부친상=발인 22일(목) 화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김선희씨 별세 광석·하영씨 부친상=발인 22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조봉심씨 별세 이학주·경수·경아씨 모친상=발인 22일(목) 화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권중복씨 별세 태호(광주고검 검사, 전 춘천검사장)·미자(대성여상교사)·화자(회사원)·태룡(남치코이사)씨 부친상 김동선(대성여중 교사)·박종경(연합개발 본부장)씨 부친상=발인 22일(목) 흥복 청주시 분평동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043-298-9200.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선진국형 판매시스템 프리드 현대중압상조 가임폰트 1566-4499